

무주군, 농촌 인력난 해소 '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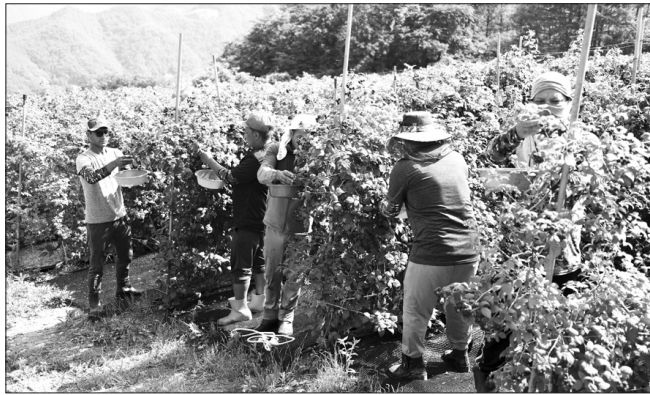
3년 연속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선정·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 등 예산 확보

2022년 필리핀 마라곤돈군과의 MOU 체결 후 공공형 계절근로자 71명을 고용, 총 2,330농가에 7,758명의 인력을 제공하며 일손 부족 해소에 주력했던 무주군이 2024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과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공모에 선정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3년 연속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선정된 무주군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비 1억 1천만 원(국비 5,500만 원, 지방비 5,500만 원)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2곳) 1억 6천만 원(국비 8천만 원, 지방비 8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국내·외 인력 확보에 필요한 정부 지원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강명관 팀장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필요할 때 노동력을 제공받아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공모 선정으로 3월부터는 다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에 따르면 '공공형 계절



외국인 계절근로자 복분자 수확 모습

근로 사업'은 농업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농업에서는 일손이 필요하지만 상시 고용이 힘든 소규모 영세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농가에서는 그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무주농협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과 급여 지급, 숙식 등을 담당하며 무주군에서는 항공료와 산재보험료, 비

스 임차료 등 교통비, 간식비, 인건비, 중식 재료비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복지후생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3월부터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에서 운영하게 될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는 농촌과 도시지역의 유희인력을 모집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직접 인력을 알선·중개(고령농, 여성농 등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업경쟁력 강화·신기술 보급 만전

무주군, 소득작목 분야 시범사업 추진... 18일까지 신청 접수

무주군이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업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무주군에 따르면 '소득작목 분야 2024년도 농업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총사업비 8억 3천여만 원을 투입할 방침으로, 농작업 시간 단축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무인 방제 과수 종합관리 기술시범을 비롯해 병해충 사전 대응을 위한 △사과 해충 친환경 방제 지원 등 과수·채소·화훼 분야 14개

사업이 진행된다.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오는 18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범 요인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그리고 농업인단체와 영농조합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이종철 과장은 "이번 소득작목 분야의 시범사업들은 급격해진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보급과 이

상 기상에 맞서는 농작물 안정생산에 주목적"이라며 "사업 대상자는 현지 심사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예정으로 스마트농업 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시범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농업신기술보급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그리고 농업인 상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경로당 건강체조교실 '호응'

진안군은 10일 읍·면 59개 마을 경로당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건강체조교실을 지난 8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작년 12월 말 기준 9,433명으로 38.5%를 차지하고 있는 정도로 고령층의 비율이 높은 상

황이며 연령과 비례한 만성질환의 증가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특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진안군은 건강체조교실을 실시하고, 5명의 체조 전문강사가 주 1회 각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생활



체조, 근력강화운동 등으로 진행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돕는다

장수군, 주택 수리비·신축 설계비 지원사업 31일까지 신청

장수군은 귀농·귀촌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및 신축 설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및 신축 설계비 지원사업은 5년 이내 장수군 전 입자를 대상으로 주택 수리비 및 신축 설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사업에 선정된 귀농귀촌인에게 △수리비 최대 1,000만원(보조 50%, 자담 50%) 이내 △신축 설계비는 최대 400만원(보조 50%, 자담 50%) 이내의 설계비를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주택 수리비 6,000만원으로 대상자 6명 △신축 설계비 총사업비 1,200만원으로 대상자 3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관할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현장조사 및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절차를 거쳐 오는 2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장수군으로 귀농귀촌인 유입을 유도하고 농촌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또는 군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농민 사회안전망 역할 '최선'

농작물 재해보험·농업인 재해보상 안전보험 가입 독려

장수군이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재해보상 안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과, 배, 단감(1월) 등을 시작으로 △고추, 배(4월) △인삼, 양파(1월 중) 등이 접수 예정이며 73개 품목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

농업인 안전 보험의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가까운 지역 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사고유형과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해 질병 시 입원비,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장수군은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27억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가입 농가에 보

험료의 98%를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 희망 농가는 지역 농협을 통해 5% 자부담금만으로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4,125명,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6,898명 가입하여 혜택을 받고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각종 재해 및 농업인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민의 사회안전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 보험에 적극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품목별 자세한 가입 시기와 내용은 읍·면사무소와 지역 농·축협 문의 시 안내받을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달라지는 지방세 정보 적극 홍보

진안군은 지방세관계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지방세 규정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출산 자녀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이다. 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세액 100만 원 초과 시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

부를 허용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했고, 재산세의 경우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적용 기간을 3년간 연장했다.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은 올해 5%로 축소됐다.

군 관계자는 "이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등 주민들이 모이는 곳 어디에서든 달라지는 지방세 정보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덕유산국립공원, 불법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 사무소(소장 안길선)는 겨울 성수기를 맞이하여 탐방객 급증으로 인해 탐방수위 및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겨울성수기 공원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순찰팀을 가동하여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2월 4일까지를 겨울성수기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 취사·야영행위와 산정상(향적봉, 중봉) 및 대피소(향적봉, 샨재) 일일 음주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별단속 시 적발될 경우, 불법행위 사안에 따라 자연공원에 의거 10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현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덕유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농기센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등록 접수

장수군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1일까지 2024년도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등록 접수를 실시한다.

등록된 농업인연구회는 연구모임과 관련된 작목의 재배 기술교육과 우수농가 현장 교육 등 연구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받을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또는 읍·면 농업인 상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은 장수군에 주소지를 둔 20명 이상의 동일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구성하면 된다.

2023년에는 사과, 토마토 등 24개 품목 49개회 1,46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활동하였으며 지난 3월을 시작으로 12월까지 18회의 기술교육과 현장 교육을 추진한 바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